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 세 곤



연일 경악스러운 저축은행 비리 뉴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문제를 되더니 이제는 감사원의 감사 위원회에 연루되었다 한다. 공직사회에 부패와 탐욕의 그림자가 곳곳에 드리워져 있으나 공직자인 것이 너무 부끄럽다. 얼굴을 들고다닐 수가 없다. 사람들 만나기도 겁난다.

마음이 답답하여 장성의 관수정(觀水亭)을 찾았다. 관수정은 맑은 물을 보고 나쁜 마음을 씻는다는 의미로 조선 중종시절 청백리 송흘(1459~1547)이 밀년에 지은 정자이다. 송흘은 당시에 조광조의 삼촌인 조원기와 함께 대표적인 청백리였다.

그는 삼마태수라 불리었다. 지방관이 새로 부임자로 갈 때는 전임 고을에서 가장 좋은 말 일곱 마리를 받는 것이 관례이었는데 그는 세 마리의 말만 받았다. 본인 이 탈 말, 어머니와 아내가 탈 말 각 한 필이었다. 송흘은 예산도 절약하였다. 여산군수로 있을 때는 호산춘이라 술을 손수 빚어 접대비용을 줄이기도 했다.

송흘은 다섯 번이나 청백리로 뽑힌 중

종 임금의 명신이었다. 이러하였지만 그 역시 관직생활 초기에는 상급자인 최부(1454~1504)로부터 역마를 개인 용도로 썼다 하여 훈성이 나기도 하였다.

성종 말년에 최부와 송흘은 홍문관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다. 최부는 응교(정4품)

당황하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역마를 끌고 걸어서 갔다. 휴가가 끝나고 얼마 뒤 홍문관을 떠나게 된 송흘은 최부에게 정중히 사과하였다. 최부는 “자네는 아직 나이가 젊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일세”라고 태실했다.

송흘은 이런 공직 초기의 실수를 명심하여 평생토록 청백(淸白)의 길, 인의(仁義)의 길을 걷는다. 마치 살얼음이 언 겨울 강을 건너듯 조심하고,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경계하듯 두려워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였다. 또한 백성을 내쳐 차같이 사랑하고 나랏일을 공정하게 하여 백성을

요즘, 청백리 송흘이 그립다

였고 송흘은 정자(정9품)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전라도 출신이라 가깝게 지내는 터였다. 한 번은 둘이 동시에 휴가를 갖는데, 어느 날 하루 장성이 집인 송흘이 나주에 있는 최부를 찾아왔다. 점심 겸상은 물린 뒤 최부가 송흘에게 느닷없이 무슨 말을 타고 왔느냐고 물었다. 송흘은 역마를 타고 왔다고 했다. 그러자 최부는 역마는 어명이었다. 그러나 송흘은 정중히 사직을 한다. 나이가 너무 많고 몸이 아파서였다.

1544년, 왜구가 경상도의 사령진 포구를 습격하여 수군들이 죽고 주민들이 피

의 신뢰를 얻는 목민관이 되었다. 소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벼슬살이를 한 것이다.

1541년에 중종임금은 이미 은퇴한 83세의 송흘에게 다시 벼슬을 내린다. 요즘 관료들이 부정부패가 심하니 조정에 들어와서 청백리로서의 도법을 보여 달라는 어명이었다. 그러나 송흘은 정중히 사직을 한다. 나이가 너무 많고 몸이 아파서였다.

1544년, 왜구가 경상도의 사령진 포구를 습격하여 수군들이 죽고 주민들이 피

해를 입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86세의 송흘은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린다. 백병 전에 능한 왜구를 막으려면 수군을 보강하고, 기존의 수군 배인 맹선 대신에 판옥선을 만들 것을 건의한다. 비록 낙향하였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이 과연 청백리답다.

송흘의 호는 지지당(知止堂)이다. 지지는 ‘멈추는 것을 안다’는 의미인데 노자의 도덕경 제44장에는 “만족함을 알면 유퇴지 않고, 멈출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知足不辱 知止不殆)”고 하였다. 송흘은 그의 후처원 은갖 유풍을 자제하면서 살았다. 돈의 유풍, 청탁의 압력을 이겨냈다.

어찌 송흘만 그랬으랴. 조선의 청백리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삼가며 물욕을 끊었다. 이는 다산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율기 6조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청렴하게 하며, 청탁을 물리치고, 집안을 다스리며, 예산을 절약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계속 터지고 있는 각종 공직비리 때문에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요즘, 청백리 송흘이 그립다. 정말 보고 싶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를 한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형을 가하였다. 이를 두고 ‘고무줄 형량’이라 한다면, 그것이 사실일지는 모르나 진실은 아닌 것이다. 법관의 양형은 사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진실을 도출해 하거나 어써 감주고 ‘고무줄 형량’이라고 유파지르고 두들겨 패기만 하다 보면 슬그머니 자판기 형량(?)이 일반화될지도 모른다. 언젠가는 자판기 형량이 재판 불신의 주범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판사는 어디 가고 자판기 재판이 웬 말이냐. 자판기 형량은 이제 그만. 제발 그만, 고무줄 형량(?) 없는 사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시위가 줄을 이을지도 모른다.

항소심 재판을 하다가 초콜릿 1개, 과자 한 봉지, 담배 한 감을 훔친 피고인에게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 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문을 대한 뒤 이련저런 생각에 여기까지 오고 말았다.

매 순간 내 앞에 놓인 사건마다 가슴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서자. 사설보다 중요한 진실을 찾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조칼럼



송희호

고무줄 형량(刑量)

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이 상황에서 “형량을 정하는 것은 원래 그야말로 되는 것이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이 없으니 사건마다 형량이 다른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자판기를 통해 판결문을 뽑아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라고 토를 달았던 국민은 더 화나게 할 게 뻔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 국민의 시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법관들은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법관들 사이의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쯤에서 숨 한번 고른 뒤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 재판부에서 지난해 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했다. 피고인이 길가에 세워진 봉고자 뒷문을 열고 야채 등 먹을거리 를 훔쳐다 봤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그러나 그 뒷면은 아닐 것이다. 국민도 보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불행하게도 그 형량은 배심원들이나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최하한 형이었다. 절도 범죄로 2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 내에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무기징역이나 징역 6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특별법 등을 만들어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과도하게 축소하려고 하는 한(특히 형의 하한에 대한 재량권 축소), 그 초라한 사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며 죄스러워하던(?) 배심원들의 모습을 자주 보아야만 될 것이다.

무겁게 밭을 떠던 배심원들의 뒷모습을 또 보아야만 될 것이다. ‘고무줄 형량’, 그것이 사실일지는 모르나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담을 넘은 아이와 유

흥비 미련을 위해 담을 넘은 사람이다.

최초 확보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이 제도의 장점을 살려 합리적 에너지원 선택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료가격 변동시 가격신호의 제공을 통해 소비주체의 수요변화 파악 등 정책 차원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종·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과도한 전기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절약을 통해 요금을 줄이고, 연료 인하시점에는 그만큼 인하 조정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 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도시가스(1998년), 항공료(1903년) 등의 시행으로 이용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권장해오고 있다.

이제 대체 정부의 성공적 도입으로 에너지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에너지 절약형 가격시스템으로서 녹색성장의 기초를 단단히 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 전기 소비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대 교수〉

기고

에너지 절약과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김일태

정부는 지난 2월27일 두바이유가 5일 연속 100달러를 웃돌자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공공부문 경관조명과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심야조명에 대해 3월부터 강제소동하도록 조치했다.

이렇듯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엔 의문이다.

에너지 소비절약의 근본대책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에 있다.

우리나라는 중동지역 정세불안 등에 따른

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늦었지만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추가해 결정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와 한국전력은 연동제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요금의 잔여는 변동과 시황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서민가계와 자영업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정주기(3개월간) 실적 연료비를 반영한 가격을 2개월 시차로 매월 적용(?)과 조정상한(15%)을 설정하는 등의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노력과 아울러 공정의 원

대학의 학사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되며 적어도 중간고사를 마친 뒤부터 입사지원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입사전형 기간도 너무 길어 대학 생활에서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각 전형요소 간 합격률을 높리 발표하여 장기간 동안 입사 시험에 시달리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대학의 학사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되며 적어도 중간고사를 마친 뒤부터 입사지원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입사전형 기간도 너무 길어 대학 생활에서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각 전형요소 간 합격률을 높리 발표하여 장기간 동안 입사 시험에 시달리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두달 이상 걸리는 기업공채 전형… 학사일정 차질 많아

상반기 기업공채에 지원했는데 지원서 마감부터 최종 합격 발표까지 무려 두 달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물론 기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우수하고 자질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한 방법일지는 몰라도 지원자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긴 시간 동안 피를 말리게 된다.

우선 상반기 입사지원이 보통 3월 초, 중순으로 되어 있다. 대학에서 보면 학기가 막 시작인데 기업체에서는 바로 입사지원을 하도록 하여 학기초부터 학과공부는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다. 입사지원이 끝나면 1~2주일 후에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

표하고 곧 인·적성검사를 실시한다. 다시 보름 후에 인적성 합격자를 선발하고 지정된 날짜에 면접을 보게 된다. 보통 실무면접과 일원면접 두 차례나 된다. 면접기�이 보면 대학의 학사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되며 적어도 중간고사를 마친 뒤부터 입사지원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입사전형 기간도 너무 길어 대학 생활에서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각 전형요소 간 합격률을 높리 발표하여 장기간 동안 입사 시험에 시달리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기업에서는 너무 조기에 입사시험을 치러

시 설

수능 대체 영어능력 평가 부작용 없게 해야

대입수능의 외국어 영역을 대체할 국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낮은 변별력을 통한 교육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7일 듣기·읽기·말하기·쓰기 4개 영역에 대한 4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르는 고등학생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시행방법을 공개했다. ‘한국형 토플’이라 할 수 있는 이 방안은 일단 방향은 옳아 보인다. 그 동안 말하기·쓰기 영역은 5지선다형 지필문제에 의한 ‘간접 평가’ 방식으로 절대평가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시험 수준이 협력평가 수능과 변별력이 현저히 낮아 대학별 영어면접 같은 추가 전형이 강화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2014년도에 영어영역이 A형, B형으로 나뉘는 수능 개편이 예정돼 있는데 2016학년도 또 바뀌게 돼 교육현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따라서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솔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수능 영어와 국가영어능력평가를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사나 시설 등 학교의 영어학습 환경이 사설어학원보다 벌어지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게 사실이다. 우선 영어능력평가가 거꾸로 사교육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사나 시설 등 학교의 영어학습 환경이 사설어학원보다 벌어지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광주에 사는 한 네이버인이 인터넷에 ‘우치동물원의 충격적인 광경’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환경개선을 위한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겠는가. 그런데도 우치동물원 측은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뉴스만 내놓고 있다.

동물원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끼치는 것’까지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동물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우치동물원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동물들의 생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연과 생명을 경외해야 할 동물원이 ‘동물 학대 현장’이라면 이는 분명 광주의 수치다.

無等 鼓

찰담한 봄날이었다. 1991년 5월 사흘 이 멀다 하고 꽂다운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정권의 비민주·독재적